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 1열왕19, 9a, 11-13a
제2독서 : 로마 9, 1-5
복음 : 마태 14, 22-33

순정이

예수께서 물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 14, 26-27).

강론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경규봉 신부

“아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나라 사람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며

사람마다 이 몸을 저주합니다”(예레15, 10).

예언자 예레미야의 위와 같은 고백은 “나쁜 자들은 만사에 성공하고,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되기만 하는”(예레12, 1)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들에게 더더욱 고통스러운 점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때때로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비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새벽 4시에 이르기까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역풍과 풍랑과 싸우며 고생하는 그들에게 더더욱 어려운 점은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고통에 처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다가간다. 제자들이 그들의 접근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며 두려워하지만,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시므로써 역풍과 풍랑을 잠재우신다.

이처럼 위협에 처한 제자들과 함께하시므로써 그들의 위협을 제거해주시는 예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빠질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써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지금도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많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주심을 굳게 믿는다.

소리

“제2의 광복, 통일”

어떠한 이유로든 한 가족이 둘로 나누이거나,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짐은 비극이요 죄악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온전히 타의에 의해서 갈라지고, 그 때문에 헤어진 가족을 애타게 그리며 살아야 하는 슬픔이라니,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오. 그러기에 우리는 갈라진 것들이 하나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가? 그것은 체제에 안주하고자 하는 몇몇 이해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끈질 통일정책을 말해왔다. 거개가 자신의 정권안보를 위해서 통일정책들을 제안해왔다. 통일정책이 결코 정권유지를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 없는데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말의 성찬을 벌이기만 해왔다.

<범민족대회>와 <민족 대교류> 제의만 해도 그렇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말인가? 그것들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없는 채, 그저 국제정세에 밀리고 민족의 열망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내놓은, 임시방편의 땀질에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이것들이 진척되어 가는 모습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범민족대회의 서울·평양 순회 개최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남한도 진정으로 민족 대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풍선만 띄우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통일의 열망을 몸으로 말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인들을 석방함으로써 통일의 순수한 의지를 증명해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됨, 곧 제2의 광복인 통일이다. 韓

순정이 산책



성모승천축일에 도움시다.

♣ 잘못된 '성모신심'에 관한 걱정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회칙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도 어머니가 된다." 영보 때 자신에게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련 중에서도 이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첫번째 믿으셨던 마리아처럼, 교회 역시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여 "복음 전도와 성세성사로써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을 낳아 그들에게 불멸의 새생명을 줌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지니는 이 "어머니의" 특성은 이방인들의 사도께서 쓰신 편지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갈라4, 19). <중략>

마리아에게서 교회가 자신의 모성을 배운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마리아의 깊은 성덕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본받으며 성부의 뜻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성사적 본질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성소의 모성적 차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구세주의 어머니 43항).

즉 성모 마리아와 우리의 구원과의 참된 관계는 공경하고

찬미드리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했던 마리아의 환희와 아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성모신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은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기에 슬한 아픔을 겪어내는 기쁨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주시는 은총과 희망의 축제일이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축제를 지내며, 커다란 기쁨과 함께 자성(自省)의 질문을 던져 본다. 오늘날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성모신심'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직 하느님께만 충실해야겠기에 겪어야 했던 마리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외면한 채 마리아의 전통(傳求)로부터 얻어지는 은총에만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 마리아의 이름을 앞세운 기복적, 미신적 신앙이 교회 곳곳에 퍼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나자렛의 예수처럼 십자가를 곁으로써 '구원에 이름'에 있다. 마리아가 여인이며 예수의 어머니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제외받는 중개인으로 여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세인들, 특히 갈라진 형제들의 지적대로 우리 천주교회를 마리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 교회를 도움시다"

지난 7월 16일 발생한 필리핀의 대지진으로 그곳 교우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 교회와 함께 우리 천주교구도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도 8의 지진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필리핀 주교회의의 재해 상황 보고에 의하면 피해지역은 8개 교구 관할 지역으로 여러 교회 건물이 붕괴되었고 현재까지 1,600명 사망, 1,1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재해의 참화와 관련된 긴급구호와 복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이에 필리핀 주교회의의 사회사목조정위원회(ANSSA)(한국의 인성회에 해당됨)가 지난 17일 오후 2시에 긴급전문을 통하여 각국 교회에 원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필리핀 교회가 기울이는 노력에 한국 교회의 정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 인성회에서는 각 교구별로 정성을 모아 로마 국제 까리따스를 통하여 필리핀 교회에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5. 우리 교구에서는 오는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각 본당별로 2차 헌금을 실시하기로 하고, 모아진 헌금을 전국 인성회로 보냄으로써 필리핀 교회의 재난의 아픔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6. 따라서 신자들에게 재난의 상황을 주지시켜주시고 당일 2차 헌금으로 모아진 헌금을 8월 20일까지 교구 관리국으로 보내주시며, 참혹한 재난을 당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특히 6·25 직후 베풀어준 외국 교회들의 온정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잊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입니다. 형식적인 헌금으로 지나쳐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온갖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은 필리핀 교우들로 하여금 전세계 모든 교우들이 같은 잔과 빵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주님 안의 한 형제들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이)
동부시장앞 · 민정당사앞
☎ 86-2715

 **임정골한의원**
원장 임의성 (스테파노)
간호사 정성옥 (대레사)
☎ 3-2403. 445-2403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담
(군산) 국도극장 뒤

천자문 · 사자소학
사군자 · 전 각

명륜서예한문학원

원장 선기정 (요셉)
효자성당 옆
☎ 82-6492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최윤경 (유리엔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 · 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2-8653

잡 간!

“한국천주교회-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통중에 신음하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고서도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파견되신 예수처럼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의 인간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인간들의 갈 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온전한 자유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완전한 민주화와 보다 빠른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더욱이 민주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금번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계획한 8월 14일, '15명의 사제 북한 파견'과 8월 16일 오후2시 관문점 '90년 통일염원미사'이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 대한 많은 이견(異見)이 있으리라. 하지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통일에 대한 우리 교회의 마음이 상징적으로라도 표현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통일 조국의 역사 안에 한국천주교회가 제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해방된 우리 역사 속에 언제나 부끄럽게 남아야 하는 일제 36년의 조선천주교회의 모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천주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역사의 질문에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90년 통일염원미사 참가 문의: 친구사 85-2966. +평화동 사제관 85-6979>

교 구 소 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바티칸의 휴일' 상영: 13일(월) 오전10시 회비1,000원
- 중고생 영화 'THE KID'(어린이) 상영: 13일(월) 오후4시 회비500원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선착순 80명)

1. 축! 견진: 노송성당 8월 15일(수) 오전10시30분
2. 참사회: 8월17일(금) 오전10시
3. 혼인강좌: 8월26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4. 전주교구 초등부 교리 다시 알아보기: 8월 19일 오후2시-2시50분 장소-각 본당
5. TV드라마와 비디오를 보신 소감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5매 이내(체택된 원고는 교료를 드립니다) 문의접수처-홍보국
6. 파티마 성모 수녀회 성소피정: 18일-19일 회비3,000원 본원(0331) 8-5883
7.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성소자 모임: 8월 19일 오후2시 본원(062) 54-0041
8. 경로 수녀원 성소피정: 8월 25일(토) 오후5시-26일(일) 오후5시 본원(0431) 56-6697

- 부 제 서 품 공 시 -

1990년 8월 29일, 광주 가톨릭대학 성당에서 김진철(빈첸시오)가 부제품에 서품될 예정입니다. 부제품에 서품된 자는 복음을 강론하고 교회사무를 집무하게 됩니다. 위 서품은 신자들에게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서품되기 전에 미리 반포하여 서품될 자의 덕망과 장애의 유무사실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만일 위 서품자에게 서품하기에 장애가 되는 무슨 결함이 있는 줄을 알면 누구든지 주의 영광과 성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본당신부나 주교께 말하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서품자를 위하여 주 대전에 열심히 기구할 것입니다.

1990년 8월 10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 병 호 주교

호심이 (888) 김병오



현대영어과외교습

국교부 · 중학부 · 일반부
어머니 한글, 숫자 해독반 모집
상담문의 86-7666
위치: 전주 시립도서관 곁목
최영숙 (마리아)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릉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분대·흔레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 (오봉)
한 안나 (은순)
전주 ☎ 77-1747

brother 흥패션만능미싱
부리다 (B950M)

※장기할부판매 (12개월)
※휴대선부료감의
다이한플래닝
김 무 (도미나27)
☎ 77-7478

맥코이이온정수기

국내·외 최고판매의 (보건사회부허가)210호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
(주)모리아 크리스탈 전라사업본부
대표 서동주 (스테파노)
경원동 전북대 치과대학 사거리
☎ (0652) 86-1077, 82-8038
교우상담현영, 남서원계속모집, 수질검사부료

푸마반도스포츠
상설 할인 매장

단체복 주문 환영
신발 30%, 의류 40~50% 할인
대표 국길주 (실비아)
코오로쇼핑 내 1층
☎ 85-7743, 87-2495

이리대중자동차 매매상사

(중고차매매 및 등록대행)
대표 정 광 택
TEL. 3-6606, 3-6655, 857-6607
FAX. 857-6608
위치: 이리시 영등동 약촌 (구)호남자동차학원

☐ 임순남·무진장 본당소식 ☐

*남원

사제관 33-1004 사무실 33-4004 주임신부 고 경 훈
수·유 33-4005 사목회장 윤 기 호

※ 오늘은(15일) 경로잔치를 위해 2차헌금 있음.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들을 빠짐없이 모십니다).

1. 다음주일은 필리핀 지진으로 재난에 허덕이는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위해 2차헌금 있음(서로 도와 줍시다).
2. 유아세례: 17일(토) 오후4시 오늘까지 신청바람.
3. 교부금 봉헌이 부진합니다. 월별로 봉헌 합시다.
4. 8월15일(수)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오전5시30분-(일반) 8시30분-(초, 중, 고) 10시-(공식미사).
5. 어린이 복사단 물놀이에 협조하신 성인복사단에게 감사.
6. 진복회 월례미사: 22일(수) 아침5시30분.
7. 17일까지 첫영성체 교리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빠진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금주 전례: 해설-차수옥 독서-최락찬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철관 독서-공부택 부부
성모승천: 해설-조재현 독서-이진주 부부

*도동동

사제관 31-0091 주임신부 유 영 도
사목회장 이 영 진

1. 성인성가대 모집: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어머니미사: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3. 도동 A.P.T 구역모임: 8월14일 오후8시30분 105동 102호.
 4. 본당 비품은인 구합니다: 미사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미사때에 배달미사, 생가지집 꼭 지참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0,320원 □ 교무금: 137,000원

*무주

사제관 22-2308 사무실 22-2398 주임신부 오 현 택
수녀원 사목회장 이 정 하

1. 반장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8월15일 오후1시30분.
 3. 축! 푸르실리스타 탄생: 이네규, 신동준, 김학수.
 4. 성모승천 10시미사: 8월15일
금주 공소미사: 없음. 차주 공소미사: 없음.
금주 전례: 해설-윤혜자 독서①김영근 ②박명남
봉헌-이두홍 부부
차주 전례: 해설-태남순 독서①정병권 ②윤혜자
봉헌-한인홍 부부
남-47명 여-109명 계-156명
- 지난주 봉헌금: 165,690원 □ 교무금: 102,000원

*순창

사제관 53-0414 주임신부 양 경 배
사무실 2-2234 사목회장 홍 석 열
수녀원 2-3135

1. 8월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 의무축일입니다.
 2. 성사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안사회: 차주 공식미사 후.
 4. 여름성경학교에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양우정-3만원 김완수, 분희식-2만원 정준원, 조주현-1만오천원 손남수, 김환자-1만원 박건용-아이스크림 50개 이경애-음료수1박스, 이광천-물놀이 버스제공 시대화원-닭도리탕(4마리) 김관섭, 정석현-비상약품 2박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금주 전례: 해설-오경순 독서①정준원 ②이남숙
봉헌-이종기 씨 가정 청소-평화의 모후Pr.
대축일 전례: 해설-김성애 독서①홍석열 ②김신자
봉헌-정준원 씨 가정 청소-사도들의 모후Pr.
차주 전례: 해설-김희미 독서①정승일 ②송경희
봉헌-설귀한 씨 가정 청소-정의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141,450원 □ 교무금: 244,000원

*임실

사제관 43-3661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42-2164 사목회장 한 장 현
수녀원 42-2164

1.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선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영세 예정자 만남: 14일 오후2시.
 4.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15일 10시30분 대축일이므로 공소 사는 없으니 공소신자분들은 빠짐없이 본당미사에 참여하시길
 5. 축! 영세: 8월15일 공식미사 중.
 6. 구역모임: 오수지역-16일 저녁8시. 관촌지역-17일 저녁8시
 7. 초등부 교리 경시대회: 18일 어린이 미사후.
 8. 감사: 성합(350,000원): 이태현 성합도금(75,000): 배세리아.
 9. 예비자 교리 안내: 임실-주일 10시30분미사 후. 오수-주 오후3시미사 후. 관촌-금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464,900원 □ 교무금: 410,300원

*장계

사제관 351-0111 주임신부 박 진 램
사무실 사목회장 이 환 구

- ※ 경 성모승천대축일 축
1. 성모승천 대축일: 8월15일 수요일 오전10시미사 공소신자들로 의무적으로 참여하시기바랍니다.
 2. 2차헌금실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필리핀난민을 위한 2차헌금이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축 영세: 8월14일 오후4시에 영세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4. 첫영성체: 8월15일 첫영성체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진심으로 하합니다.
 5. 공소미사: 금주-월원공소 없음. 차주-쌍암공소 없음.
 6. 전례: 금주 독서와봉헌-임환식, 정진주 씨
기도-유병화 씨
성모승천축일 독서와봉헌-이상화, 이현숙 씨 기도-용득 씨
차주 독서와봉헌-하성만, 최희숙 씨 기도-류안나 씨
- * 중고생 산학학교(코노노니아): 협조해주신 분-이정근 요섭 만원, 김미경 세실리아 1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64,900원 □ 교무금: 100,000원

*장수

사제관 4-2264 주임신부 강 덕 현
사무실 사목회장 윤 장 철

- ※ 성모님 성요셉 침례기도회: 일시-90. 8. 11, 토, 저녁10시 소-번암공소.
1. 부녀회합: 금일 공식미사 후 본당회합실.
 2. 축! 영세: 8월14일 번암공소미사 중에 있습니다.
 3. 축! 성모승천 대축일 8월15일 1부-미사 오전10시. 2부-축행사.
 4. 생가지집회: 8월20일 저녁 이희서 씨 가정
 5. 요셉 청년회: 8월25일, 토, 저녁8시30분 본당회합실.
 6. 금주 전례: 해설-박영현 독서①권남주 ②권봉조
기도-부녀회.
차주 전례: 해설-이승미 독서①정연수 ②황명숙
기도-청년회 봉헌-박동표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1,800원 □ 교무금: 50,000원

*진안

사제관 33-0750 주임신부 박 찬 철
사무실 33-2541 수·유 33-2293 사목회장 함 연 구

1. "축" 영세: 오늘 공식미사중에 새로 입교하신 형제·자매님 심으로 환영 합니다. 2.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8월15일 본당 6시, 10시30분 한동-8시30분 평촌-미사없음 * 이날 필리: 교회를 위한 2차헌금 있음.
 3. 첫영성체식: 8월15일 공식미사 중에 첫고백-14일 오전.
 4. 사목회, 공소회장단, 구역반장, 단체장전목회: 15일 공식미사-장소-부귀 두남리 예비군 훈련장 본당에서 공식미사 후 출발
 5. 무진장지구 내무공무원 모임: 19일 어른동 공소에서
 6. 예비자교리: 19일(주일)부터 개강 관심을 갖고 많이 인도합 다.
 7. 신우테니스회 월례회의: 오늘 오후.
 8. 금주성당청소: 원단양 수고해 주세요.
 9. 금주 전례: 해설-김명신 독서①하대식 ②전정옥
기도-전정옥 봉헌-이성별 씨 부부.
성모승천: 해설-이성현 독서①송상모 ②장민자
기도-장민자 봉헌-김용식 씨 부부
 10. 미사안내: 성모승천-김명신, 이광순, 오향림 차주-홍용호 백기순, 송안나
- 지난주 봉헌금: 176,180원 □ 교무금: 375,000원